

# 한미정상, 별도 공동성명서 ‘美핵우산 강화’ 천명한다

## 확장억제 협의체 상설화

신뢰할 수 있는 ‘핵우산 내실화’

‘핵 보복’ 명문화도 담길 듯

한미가 오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성명에 담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간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의 ▲공동기회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관급 EDSCG 등 한

미간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컸고 정보 기혁·실행 면에서 산재해 지속해오던 것이 있다”며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되는구나” 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경우 상설 조직인 핵기획그룹(NPG)을 두고 핵 문제에 대한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한다.

한미의 경우, 러시아의 핵 위협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30여 개에 달하는 회원국이 참여하는 나토보다 더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공동 성명에 명문화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5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유사 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하며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사실상 천명한 바 있다.

한미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북핵 위협 극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까지 제기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함께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 첫 일정 넷플릭스 CEO 접견... “3조 3000억 투자 유치”

서랜도스 “4년간 25억달러 투자

한국 드라마·영화 창작 돕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고,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이 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다수의 넷플릭스 임원을 만났다. 블레이 하우스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3박 4일간 머무르는 숙소다.

접견은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으로, 당초에는 이날 저녁 워싱턴DC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포 간담회가 첫 일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방금 서랜도스 대표, 넷플릭스 CEO들과 만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CEO도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서랜도스 CEO는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밤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행사 준비는 3개월 정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넷플릭스 쪽에 먼저 제안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쪽에서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다”며 막전막후를 공개했다.

“그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줄기도 했다가 최종적으로 25억달러 됐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가) 중간에 편지도 주고받았고,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번 유치에 적극 관여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콘텐츠 관련해 관심이 꽤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투자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서랜도스 CEO도 이번 투자 과정에서 윤 대통령

과의 교감이 있었음을 밝혔다.

서랜도스 CEO는 “저희가 이렇게 결정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저의 편지에 대해) 따뜻하고 친절할 답장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련 발언도 추가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 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 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서랜도스 CEO는 “한국 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며 “한국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을 서비스하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세계 34개 언어로 자막과 더빙을 제공할 정도로 크게 확장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행안위 전세사기 보증금 先변제 지방세법 통과

국힘·민주·정의당 우선 처리키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당해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다.

행안위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상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

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지방세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

증금을 채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간호법 강행처리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으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

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간호법 협상 계획을 묻는 말에는 “아직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계속 협상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감’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전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로운 금융시스템 **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체크카드, 인터넷/스마트 예금·보험, ATM 등

우체국 금융거래 전면중단

2023 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 5일 00시~8일 06시까지

7 8 9 10 11 12 13

어린이날

우체국 금융거래중단

14 15 16 17 18 19 20

고객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 ★ 5월 5일 이전에 필요한 현금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 ★ 돈을 보내거나 받으실 경우 중단기간은 피해 주세요
- ★ 체크카드 사용은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세요

문의 사항 고객센터(평일 09:00~18:00) ▶예금 1599-1900 ▶보험 1599-0100

전남지방우정청 KOREA POST